

조선시대 옛글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길지혜* · 손용훈** · 황기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Cultural Landscape around Lotus Ponds of Fortress Wall of Seoul through Old Writings in the Joseon Dynasty

Gil, Ji-Hye* · Son, Yong-Hoon** · Hwang, Kee-W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value of Dongji(東池), Seoji(西池) and Namji(南池), the lotus ponds of Fortress Wall of Seoul as part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period through a consideration of personal behavior and impressive landscape characteristics via various old writings on each pond. The objects of this study include poems, diaries, travelogues and essays describing these po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ferred landscape elements of these three ponds were lotuses, willows and water itself. Second, while Dongji was recognized as a natural landscape, the composition of Seoji was a mixture of with natural and urban landscapes, and Namji was more urban altogether. Third, in aspects of personal behavior, while Dongji was a place where people broke their journeys to gaze at the scenery or looked down distantly, in Seoji, people stayed for a long time in a pavilion called Cheonyeon-jeong(天然亭) and engaged in various leisure activities, and in Namji, there were many gatherings under a temporary shelter or at a friend's house near the pond. Night was the best time to enjoy Namji because during the day, the area was crowded with people, horses, carts and so on. Fourth, the landscapes of fortress walls were impressively described often. Fifth, because these ponds were integrated into the surrounding area, they were like public openspaces mixed with water spaces, natural environment and adjacent facilities.

The lotus ponds of the Fortress Wall of Seoul were located in a place connecting inside and outside of fortress, supplemented the cultural features in city, were valued as public openspace, and made it possible to experience the unique landscape of Hanyang. Although these ponds were buried and have now disappeared, they still hold great cultural meaning and potential value as water landscapes of the old city.

Key words: Landscape Characteristics, Landscape Enjoyment, Open Space, User Behavior, Water Landscape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양도성의 연지인 동지, 서지, 남지 관련 옛글을 통해 연지에서의 개인의 행태와 감흥을 준 경관적 특성을 고찰해 당대의 문화경관으로서 연지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연지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는 시문, 일기문, 기문 등의 옛글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 연지 모두 연꽃, 버드나무, 연못의 물을 아름다운 경관요소로 꼽고 있다. 둘째, 지역적으로 동지가 자연적 경관으로 인식되었다면, 서지는 자연적 경관과 도시적 경관으로, 남지는 도시적 경관으로의 성격이 강했다. 셋째, 이용행태 측면에서

* **Corresponding Author** : Son, Yong-Ho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South Korea, Tel.: +82-2-880-8107, E-mail: sonyh@snu.ac.kr

동지가 이동 중 잠시 들리거나 멀리 조망하는 방식이었다면, 서지는 천연정 누정에서 긴 시간을 체류하며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졌다. 남지는 임시로 장막을 편 곳이나 인접한 지인의 저택에서 모임을 가졌고,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밤 시간이 연지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넷째, 세 연지가 한양도성과 인접하기에 주변 경관에서 성곽을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글이 많았다. 다섯째, 연지는 주변 환경과 통합적으로 체험되어 넓은 수공간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했다.

한양도성의 연지는 도성의 연접부에 위치해 도시의 문화적 기능을 보완하고,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한양 고유의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현재 이들 연지는 사라졌지만 고도의 수경관으로서 많은 의미와 잠재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경관요소, 수경관, 오픈스페이스, 이용행태, 향유방식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양도성의 연지인 동지(東池), 서지(西池), 남지(南池)는 한양의 공공 문화공간으로 조선시대에 걸쳐, 서지는 일제강점기까지, 매몰과 수축의 과정을 거치며 유지되어왔다. 이들 연지에 관해 이전의 연구에서는 연대기 자료나 지리지, 고지도, 근대지도 및 도면 등의 자료들을 통해 연지의 운영과정과 역사적 변천, 입지 및 공간 특성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1] 이를 통해 연지의 물리적인 공간 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었으나, 과거 연지가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고 이용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리적인 경관은 사람과의 관계맺음 속에서 유지되고 많은 기록을 남긴다. 실제로 경관은 '정을 촉발한다(觸情)'는 말이 있다. 경관이 마음속에 있는 정서를 촉발하고, 나아가 잠재하고 있는 정서를 구체화하는 매체가 된다는 얘기이다.[2] 이들 연지에서도 사람들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서 여러 활동과 체험을 통해 경관을 향유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에게 연지의 경관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과거 하나의 장소를 경험했던 개인의 기록을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문은 경관을 표현하는 대표적 옛글로, 시문을 통해 과거의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시문 외에도 일기문, 기문,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은 경관이나 장소와 관련이 있는 감정, 관점, 가치, 태도, 의미 등을 수렴하고 있다[3]고 여겨져 여러 문헌들을 통해 개인에게 의미 있었던 경관과 장소를 연구해오기도 했다. 또한, 편지, 계약서, 소송문서, 판매장부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을 미시적으로 연구하여 장소적 특성을 기존의 관념과 다르게 새롭게 규정하기도 했다.[4]

동지, 서지, 남지의 경우 이전의 연구에서 주변 환경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람하는 장소였다고 고찰했기에 다양한 유형의 고전(古典)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지에 대한 감상과 당시의 이용 상황을 담고 있는 여러 옛글을 통해 연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해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객관적 견지에서 떠나가 연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시, 일기문, 기문 등의 옛글을 통해 이 장소에서 선인들이 감흥을 받았던 점, 실질적인 연지의 분위기, 경관을 향유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지별로 개인의 행태와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경관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연지를 어떻게 향유했는지 당대의 문화경관으로서 연지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했다.

2. 연구사

조경학에서 장소별 옛글을 고찰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시문이 많이 남아있는 누정이나 원림, 별서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별서정원과 정자의 시문을 통해 조영의 제반 사항을 연구하기도 했고[5], 소쇄원의 경관특성과 공간인식[6][7], 밀양 금시당 문화경관[8], 광주시 정자 조영에서의 선호요소[9], 괴산 지역 누정의 조영의도[10], 남한강 일대에서의 문화활동의 장소[11], 창덕궁 후원의 의경과 경관특성[12], 비해당 48영의 경관구조[13], 영·호남 누정의 의미경관[14], 함양 대고대의 장소적 특성[15], 영남루의 경관 특징[16], 한양의 원림 향유문화[17]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옛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나타난 특성을 여러 주제들로 묶어 정리해 해석하기도 하고, 내용을 구조화하여 항목별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내용을 고찰하여 여러 주제로 소결을 맺고 각 내용이 소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14] 후자의 경우 분석항목을 먼저 정하여 이에 따라 작품을 항목별로 해체하여 고찰하였다. 분석항목의 경우 요소별 특성[8][9], 경관적 특성[12][13], 이용적 특성[10][15][17], 인식적 특성[7] 등의 주제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옛글을 통해 종합적 결론을 내리기에 용이하며, 후자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글을 분석했기에 다양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고 어떤 요소가 더 강조되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장소적으로 연지의 경우 특정인에게 소유된 공간이 아니라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대상들과는 차이가 있다. 이용과 향유 측면에서 연지 공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연지와 주변 환경의 경관을 폭넓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옛글이 다양한 유형의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석해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실질적인 연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항목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동지, 서지, 남지와 관련한 옛글이다. 이들 연지와 관련한 옛글들을 수집하기 위해, 동지, 서지(모화지, 반송지, 반지), 남지의 명칭과 함께 주변 지물(경기감영, 기영, 중군영, 관왕묘, 천연정, 승례문, 남문, 석문, 흥인문, 동문, 청문, 돈의문, 서문, 신문 등)의 명칭으로 한국고전종합 DB에서 검색하였고, 추가적으로 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인물의 작품집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관련 작품을 추출하였다.

옛글 중에서 국역이 된 글은 원문과 함께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국역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어를 중심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동지, 서지, 남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연못의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글을 선정할 때 문헌에서 언급된 주변 지물과 작가의 일대기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정하였다.

또한, 시문은 자연이나 자연경관 자체를 노래하기보다 자연을 이루는 경물이나 경상을 읊은 것이 많고[2] 다른 장르의 글들에서도 경관에 대한 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을 묘사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지별로 정리하였다. 특히 서지에서 단순히 경물에 대한 감상이 주를 이루는 시문이 많았다. 전체 동지 6편, 서지 38편, 남지 15편의 글을 찾았고, 그 중에서 전체적인 경관을 언급하고 있는 동지 5편, 서지 15편, 남지 11편의 옛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첫째, 선정한 옛글을 통해 연지를 이용하는 주요 행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연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관요소를 연지와

주변 환경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셋째, 각 경관요소를 묘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이 경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연지별로 가치 있게 받아들여졌던 경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흥을 일으켜주었던 주요 경관요소에 대해 파악하였다. 주요 경관요소 중 장소에 관한 것은 고지도에 표기하여 위치를 살폈고, 현재의 위성사진과도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이상의 분석을 통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연지별로 경관을 향유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지별 옛글

1) 동지

동대문 밖 동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옛글은 총 5편을 꼽을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연지 조영 시기로 추정되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17세기가 연지에 연못과 버드나무가 만발하며 가장 안정화되었던 시기로 파악된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조선 중기 박상(朴祥, 1474~1530)의 시문(E1)에서 동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동지의 관리를 명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문이 수록된 『눌재속집(訥齋續集)』이 사후 여러 본을 편집하여 간행하였기에 시문의 작성 시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시, E2에서는 '비우당팔영(庇雨堂八詠)' 중 하나로 동지를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비우당은 이수광 가문의 거처였던 동원(東園)에 위치했으며, 임진왜란 이후 기존의 집이 소멸되자 작은 초당을 다시 엮고 '비우당'이라 편액을 달은 데서 기인한다. 선대로부터 지켜 내려오던 가풍을 따라 검소함과 소박함을 잃지 않으려 했고, 집의 이름도 '비나 간신히 가리는 집'이라 명하며 그 의지를 담았다.[18] 그의 다른 글 '동원비우당기(東園庇雨堂記)'에서는 '흥인문 밖 낙봉(駱峯) 동쪽 구석진 곳에 산이 있는데 상산(商山)이라고 불리며, 이 상산의 한 자락이 구불구불 남쪽으로 뻗어 나와 마치 읍(揖)을 하고 있는 형상을 한 곳이 지봉(芝峯)으로, 깊고 아늑한 데다 넓어서 숨어 살기 좋다'고 은산-조망하기 좋은 장소적 특성을 글로 남겼다. 허목(許穆, 1595~1682)은 전 형조참판(司寇亞卿) 오공(吳公)이 동쪽 교외에 새로 지은 별장인 귀래당(歸來堂)에서 바라본 동교 일대의 전경을 E3과 같이 기술했는데, 그 중 동지도 묘사되었다. 귀래당은 동쪽 성문 밖 적전(籍田) 서쪽 안암(安巖)에 위치했다.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시문(E4)은 1699년 예조참판 시기에 쓰였고, 동교의 상산(商山) 일대를 지나면서 본 전경을 그렸고 그 중

Table 1. Old writings related with Dongji(東池)

	Author	Title	Subject	Genre	Time of writing	Korean trans.
E1	Park, Sang(朴祥, 1474~1530)	Nuljae Sok-jip(訥齋續集) 2[19]	Exhaustion of Dongji Pond (東池因旱就枯)	poem	unknown	none
E2	Lee, Su-Gwang(李睟光, 1563~1628)	Jibong-jip(芝奉集) 1	Budang 8-yeong(鹿兩堂八詠)	poem	latter years	[20]
E3	Huh, Mok(許穆, 1595~1682)	Gieon(記言) 15	Donggyo Byeoleop-gi (吳司寇東郊別業記)	travelogue	1669~1670	[21]
E4	Oh, Do-II(吳道一, 1645~1703)	Seopa-jip(西坡集) 7	Donggyo Jeoksan(東郊商山)	poem	1699	[22]
E5	Yu, Man-Ju(兪晩柱, 1755~1788)	Heumyeong(欽英) 23	Mar. 5, 1787	diary	1787	[23]

Table 2. Old writings related with Seoji(西池)

	Author	Title	Subject	Genre	Time of writing	Korean trans.
W1	Lee, Deok-Mu(李德懋, 1741~1793)	Cheongjanggwan-jeonseo (靑莊館全書) 6	Gwandok diary(觀讀日記)	diary	1764	[25]
W2		Cheongjanggwan-jeonseo (靑莊館全書) 20	Seongsi-jeondo(城市全圖)	poem	1792	[26]
W3	Park, Ji-Won(朴趾源, 1737~1805)	Yeonam-jip(燕巖集) 1	Foreword of poem in Haein-sa (海印寺唱酬詩序)	foreword	1795	[27]
W4	King Jeongjo(正祖, 1752~1800)	Hongjae-jeonseo(弘齋全書) 2	Gukdo 8-yeong(國都八詠)	poem	period of prince	[28]
W5	Yun, Gi(尹愷, 1741~1826)	Mumyeongja-jip(無名子集) Mungo(文稿) 5	Mangyeongjae essay(萬景齋記)	travelogue	1802	[29]
W6		Mumyeongja-jip(無名子集) Sigo(詩稿) 4	Cheonyeon-jeong lotus enjoyment (天然亭賞蓮時花已盡)	poem	1806	[30]
W7	Seo, Yeong-Bo(徐榮輔, 1759~1816)	Jukseok Gwanyu-jip(竹石館遺集) 1	Cheonyeon-jeong gathering (卯君與玉流紫霞露飲會天然亭)	poem	1803	[31]
W8	Jeong, Yak-Yong(丁若鏞, 1762~1836)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2	Strolling at Seoji(游西池)	poem	1794	[32]
W9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2	Strolling at Seoji again(重游西池)	poem	1794	[32]
W10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4	Enjoyment in summer(夏日遺興)	poem	1800~1801	[33]
W11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6	8 things to avoid the heat in summer(消暑八事)	poem	1824	[34]
W12	Kim, Jeong-Hee(金正喜, 1786~1856)	Wandang-jeonjip(玩堂全書) 6	Cheonyeon-jeong repairing essay(天然亭重修記)	travelogue	1836	[35]
W13	Hwang, Rok-Bi(黃綠比, 1816~?)	Hwangrok-chajip(黃綠此集)	Avoiding the heat at Cheonyeon-jeong	poem	Gojong period	[36]
W14	Kim, Yun-Sik(金允植, 1835~1922)	Unyang-jip(雲養集) 2	Jul. 14 gathering(七月十四日閏杓庭)	poem	1875	[37]
W15	Lee, Gi(李沂, 1848~1909)	Lee Haehak-yuseo(李海鶴遺書) 12	Cheonyeon-jeong lotus enjoyment(天然亭賞蓮)	poem	1903	[38]

동지가 언급되었다.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1787년 3월 5일 동묘 근처 영미동(永美洞)으로 이사한 벗 임노(任魯)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근처의 연못이 있는 정원을 방문한 내용을 E5의 일기문으로 기술하였다. 영미동 지역의 큰 규모의 연못이라는 점과 지역을 묘사한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이 연못이 동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서지

서지 일대에 대해 기술한 글을 정리하니 대부분 1793년 서지 옆에 천연정이 조영된 이후 쓰인 글들이 많았다. 조선 초기에도 '반송송객(盤松送客)'의 내용으로 서지 일대에서 송별하는

내용의 시문이 많이 남겨져있지만, 주로 송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서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2와 같이 총 15편의 글을 연구 자료로 정리했다.

천연정 조영 이전에 쓰인 글로는 유년시절 반송방 야동에 살았던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W3과 같이 서지를 언급한 내용이 있으며,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W2의 '성시전도' 시문에서 돈의문 밖 대표적 경관으로 서지를 꼽은 것과 W1에서는 서지 북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지인 심사정(沈師正)의 집을 방문한 내용을 남겼다. 정조(正祖, 1752~1800)는 세손 시절의 시문을 모아놓은 「춘저록(春邸錄)」에서 '국도팔영(國都八詠)' 중 하나로 '반지상련(盤池賞蓮)(W4)'이라며 서지를 꼽

았다.

윤기(尹愷, 1741~1826)는 W5, W6의 글을 남겼는데, 순조 2년(1802) 서대문 밖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택에서 서교 일대를 조망한 기문(W5)이 있으며, 이후 인근의 천연정에서 1806년 서지를 감상하며 시(W6)를 남겼다. 서영보(徐榮輔, 1759~1816)는 1803년 경기관찰사로 부임하였는데, 기영과 인접한 천연정에서 지인들과 시모임을 갖고 남긴 시문이 W7과 같이 전해진다. 서지 관련해 가장 많은 시문을 남긴 이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으로 전체 문집에서 서지와 관련한 여섯 편의 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중 이 연구에서는 W8, W9, W10, W11의 시문만 선정해 분석했다. 정약용은 1796년 '죽란시사(竹欄詩社)'라는 시 모임을 만들고 연 7회 정기 모임을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그 중 '막 서늘해지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서지(西池)에서 연꽃 구경하러 모인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시회가 몇 차례 일어나지 않아[24] 서지에서 모임을 가졌던 시문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만큼 서지의 연꽃에 대해 미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일(消暑八事)' 중 하나로 '서지상하(西池賞荷)'라고 칭하는 등 여름철 서지에서 연을 감상하는데 대한 시문을 여러 편 남겼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육촌형이었던 당시의 경기관찰사 김도희(金道喜, 1783~1860)를 대신하여 1836년 W12의 '천연정 중수기(天然亭重修記)'를 지었다. 천연정을 수리하고 연못 경계를 확장한 내용과 함께 서지 일대의 경관과 이용행태를 기록하였다.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1874~1876년 동안 경기관찰사였던 민태호가 초청해 천연정에서 모임을 갖고 W14의 시문을 남겼다. 그 외 황록비(黃綠比, 1816~?)와 이기(李沂, 1848~1909)

도 천연정에서 W13과 W15의 시문을 남겼다.

3) 남지

남지에 대해 언급한 옛글은 Table 3과 같이 11편 정도로 추려진다. 조선 전기와 남지기로회가 열렸던 17세기의 글들에서 주로 남지에 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성현(成俔, 1439~1504)은 승례문 밖 서쪽 약전현(藥田峴)에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거주지가 승례문과 가까워 남지를 방문한 시문을 S1, S2와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¹⁾ 임억령(林億齡, 1496~1568)도 승례문 연지를 언급하며 S3과 같은 시를 남겼다. 임진왜란 전인 1589~1591년 정도에는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남문과 연정, 연못에 관한 S8의 시문이 있다.

남지 관련해서는 「남지기로회도」가 그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자료인데, 기로회도에 쓰인 제화시(題畫詩)와 서문에서도 남지 감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기로회 참석자였던 12인 중 한 명이었던 이유간(李惟侃, 1550~1634)이 작성한 일기에서 남지를 감상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S5, S6은 이유간의 일기문이고, S7은 남지기로회도의 서문, S8은 남지기로회도 제화시이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S9의 일기문에서는 1670년 낙향하면서 도성 남쪽의 연지에서 송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10의 김주신(金柱臣, 1661~1721)의 글에서는 남지를 감상한 내용은 아니지만 남지와 관련한 문구가 있었고, 강준흠(姜浚欽, 1768~?)은 S11의 '한경잡영(漢京雜詠)'으로 한양도성 안팎의 85곳의 승경을 꼽았는데, 이 중 남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Table 3. Old writings related with Namji(南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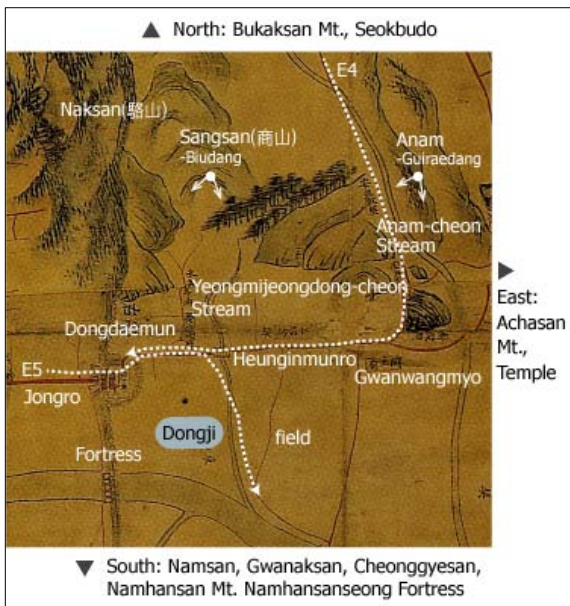
	Author	Title	Subject	Genre	Time of writing	Korean trans.
S1	Sung, Hyun(成俔, 1439~1504)	Heobaekdang Sijip(盧白堂詩集) 2	Reciting lotus in Namji(南池蓮)	poem	1470	[39]
S2		Heobaekdang Bojip(盧白堂補集) 3	Drinking with friends at Namji on a moonlit night(與如晦有本月夜臨蓮池飲)	poem	1498	[40]
S3	Lim, Eok-Ryeong(林億齡, 1496~1568)	Seokcheon Si-jip(石川詩集) 4[41]	Farewell to Lee Baek-Pil at the pond of Sungnyemun Gate(崇禮門蓮池上, 錢李伯弼)	poem	after 1535	none
S4	Lee, Yu-Gan(李惟侃, 1550~1634)	Dongchugong Gwangye Jaryo(同樞公關係資料)	Jun. 5, 1629	diary	1629	[42]
S5			Jun. 8, 1629	diary	1629	[42]
S6	Lee, Gyeong-Jik(李景稷, 1577~1640)	Namji Kirohoe-do	Foreword of Namji Kirohoe-do	foreword	1629	[42]
S7	Jang, Yu(張維, 1587~1638)	Gyegok-jip(谿谷集) 31	Foreword of Namji Kirohoe-do(題耆老諸公南池賞蓮會圖)	foreword	1629	[43]
S8	Lee, Hang-Bok(李恒福, 1556~1618)	Baeksa-jip(白沙集) 1	Strolling and enjoying lotus under moonlight near lotus pavilion of Sungnyemun Gate(南門蓮亭, 步月賞蓮)	poem	1589~1591	[44]
S9	Song, Jun-Gil(宋浚吉, 1606~1672)	Dongchundang-jip(同春堂集) Sok-jip(續集) 10	Record of 65-year-old life in Hyeonjong 11(年譜, 1670)	diary	1670	[45]
S10	Kim, Ju-Sin(金柱臣, 1661~1721)	Sugok-jip(壽谷集) 1[46]	Prohibition of killing the cows plowing the field(不殺耕牛辨)	essay	1690	none
S11	Kang, Jun-Heum(姜浚欽, 1768~?)	Sammyeong Si-jip(三溟詩集) 6[47]	Hangyeong Jap-yeong(漢京雜詠)	essay	unknown	none

2. 연지와 주변 환경에서의 행태와 경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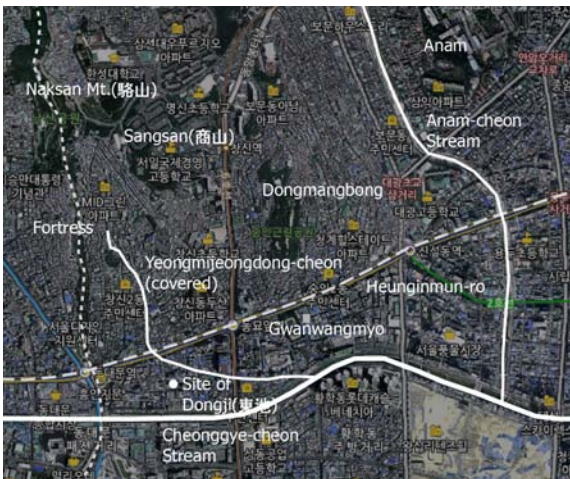
1) 동지

(1) 주요 행태

동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옛글을 보면, 주변 산자락에서 동지를 조망하며 기록한 글들이 많았다. 동지 주변으로는 평탄한 지형이 넓게 펼쳐져있어 주변 산에서 동지와 일대의 주요 지물들을 조망하기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지 북쪽의 상산과 안암의 자락에서 동지를 내려다보며 감상한 글이 전해진다.



a. major place and passing route in past(Dosung Daejido)



b. past major place in present(naver satellite map)

Figure 1. Major places in Dongji area

또한 동지에 오래 머물면서 연지를 즐기 보다는 흥인문으

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동 중에 잠시 들려 연지를 감상한 글들이 많았다. 아래 시문은 E4로 오도일이 수레를 몰고 동교 일대를 지나간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다. Figure 1-a에서와 같이 비탈길을 올라 상산을 지나 관왕묘, 동지에 닿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동지가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동교에서 관왕묘와 동지가 주요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레를 몰아 비탈길을 지나가니, 어젯밤 푸른 산에 비가 땀방이를 씻어놓았네 관우의 사당 앞에 가을 뜻이 일고, 흥인문 밖에 석양이 많으네 동쪽 못에 물이 가득하니 붉은 연꽃이 곱고, 남한에 구름이 열리니 분칠한 성기위가 높으네	驅車向晚陟陂陀 昨夜青山雨洗蘿 關羽祠前秋意早 興仁門外夕陽多 東池水滿紅蕖艷 南漢雲開粉堞峨
---	--

E5도 이동 중에 동지를 보고 찾아가 여러 차례 감상한 일기문으로, 유만주가 동대문 밖 벗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Figure 1-a에 표기했듯이 종로로 생각되는 푸른 가로수길을 지나 동대문을 나가 동성루, 동대문 누각에 올라가 주변을 조망했다. 내려와서 가다보니 우연히 동지가 눈에 띄어 연못에 내려가 보고 원도에도 건너가며 한참을 거닐었다. 그리고 지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동지로 가서 오래 구경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또 집에 왔다가 해가 질 무렵 동지를 지나 동대문 근처의 성곽에서 주변을 구경한 내용을 기록했다. 연못을 보고 정원과 같은 정취가 좋다고 표현했고 근처 지인의 저택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며 동지를 감상했다.

(2) 경관요소와 요소별 묘사 내용

동지를 다룬 옛글에서 경관을 묘사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 환경과 연지로 구분해 경관요소를 Table 4와 같이 분석하였다.

E1은 가뭄으로 연못에 역새와 갈대가 무성해진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비가 온 뒤 동지에 물은 찻으나 연꽃이 드러나지 않아 역새와 갈대를 베게한 뒤에 연을 감상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연꽃이 연못에 다시 드러난 경관을 '붉은 꽃 가늘게 모여 일천 방에 드러나고, 푸른 잎 만 자루에 퍼진다(紅英簇簇千房露. 綠葉披披萬柄敷)'고 묘사했고, 관리 이후 '도랑도 자연히 암암히 깊어졌다(渠也自然難黠)'고 했다.

E2는 상산에서 동교 일대를 조망하며 동지, 북악산, 낙산, 아차산, 영미정동천 등의 경관을 팔경으로 꼽았다. 북악산의 소나무와 낙산에 걸쳐있는 구름을 언급했고, 아차산은 조금 멀리 떨어져있는데 사이에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고 했다. 영미정동천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개울이라 했다. 동지에서는 버드나무 경관을 인상 깊게 표현했는데, 봄철 새잎이 돋기 시작하는 버드나무를 '세류(細柳)', '동풍에 날리는 솜(東風初罷絮)', '푸른 실처럼 휘날리는 가지(枝枝颺碧絲)'로 세밀하게 묘사했

Table 4. Main behavior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at Dongji

	Main behavior	Landscape Characteristics		Description/Sentiment
E1	- Governor sent a slave to cut the reeds in the pond after the rain. When the work was done, he enjoyed the lotus blossoms	pond	common reed(荻), reed bunch(葦之類)	It was regrettable that reeds were so overgrown due to drought that the lotuses were covered by them
			lotus(蓮)	Beautiful landscape of red lotus blossom(紅芙蓉簇) and green lotus leaf(綠葉披披)
			ditch(渠)	After managing Dongji, ditch also became deeper
E2	- Looking down and appreciating Dongji from a house located in Sangsan(商山) in early spring	surroundings	Bukaksan Mt.(北嶺)	Wispy pine tree over mountain
			Naksan Mt.(駝駱)	Covered with pure and quiet cloud
			Achasan Mt.(峨嵋)	Evening rain blown from the field
			Yeongmijeongdong-cheon stream(前溪)	Lying down and washing feet at stream after rain
		pond	willow(楊柳)	Describing the beauty of willows in spring as cotton wool flying in the east wind(東風初罷絮), fluttering branches like green thread(枝枝颺碧絲) and weeping willow(細柳)
sound of nightingale(鶯語)	Feeling like interlacing with sound and weeping willow			
E3	- Looking down on the Donggyo(東郊) area from a house located in Anam(安巖) and recording the landscape (from close-range view to distant view)	surroundings	Anam(安巖)	Uneven hillside and dense forest with pine tree
			Anam-cheon stream(平川)	Flowing murmuringly and having sandy bank
			Heungmun-ro street(廣路)	Broad road
			Gwanwangmyo(關王祠)	Mention of a pointed ridge of a roof and white wall
			farmland(溝塍千井)	Vast spacious field near Dongji
			east distant view(東岡)	Temple was located
			north distant view(北山)	Seokbudo was located
			south distant view(南望)	Being piled up on Namsan, Gwanak and Cheonggye Mt.
		wall of mountain fortress(雉堞)	Reaching the clouds and being adjacent to urban area	
		sound of bell(鍾聲)	Gentle sound of bell was heard at calm night	
pond	lotus(荷葉)	Covered with lotus		
E4	- Describing the landscape while riding a cart after rain at dawn in autumn - Passing route: uphill road→Sangsan→Gwanwangmyo→Dongji	surroundings	Heungmun-ro street	Uphill road(陟陁陀)
			Sangsan(商山)	Green mountain with mugwort(藜) being washed clean by the rain
			Gwanwangmyo(關王祠)	Feeling autumnal
		pond	fortress(堞)	White-painted fortress seen after the clouds lift on Namhan Mt.
			lotus blossom(紅蕖艷)	Lovely red lotus blossom
water of pond(水滿)	Red lotus became more beautiful due to being full of water in a pond after rain			
E5	- In strolling through the Donggyo area in spring, discovering Dongji and enjoying it so much one stops by three times a day. Seeing surrounding landscape at an island in a pond - Passing route: road→Dongseongru→Dongji→Dongjeong→Dongji→Dongjeong→Dongji→fortress near Dongdaemun	surroundings	Jongro street	Green tree-lined street
			Dongseongru(東城樓)	Viewing from upper chamber of Dongdaemun Gate
			Heungmun-ro street	Downhill road
			brook(溪過)	Willow tree-lined brook
			village with thatched houses(茅村)	The best time for blossoms
			Dongjeong(東亭) area	A village adjacent to brook with the feeling of a suburb: houses thick with peach and willow
		pond	fortress near Dongdaemun(東城/壁)	Viewing hiding houses under the mountain, flowers, trees, tall pine tree, stream and thatched house at every turn of stream
			pond garden(園池)	Drying up but rather large-scale
			willow(楊柳)	Tree-lined pond. Becoming old tall tree
			causeway(堤路)	Broad dike which a horse can run
			island in a pond(小島)	Small island planted with forsythia and oriental arborvitae
hawthorn(奈花)	Big tree with white flowers like snow in full glory			

다. 동지에서 들리는 피꼬리 소리는 버드나무와 얽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3는 귀래당에서 바라본 전경을 기술했는데, 묘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장은 동쪽 성문 밖 적전(籍田) 서쪽 안암(安巖)에 있는데, 산자락이 울퉁불퉁 고르지 않고 숲이 울창하다. 앞으로는 잔잔히 흐르는 시내와 백사장이 있고, 그 너머 큰길에는 관왕사(關王祠)의 뽕죽한 용마루와 흰 담이 보이고, 또 그 너머에는 동지(東池)에 연꽃이 깔려 있고 넓은 농토가 펼쳐져 있다. 동강(東岡)에는 사찰

이 있고 북산(北山)에는 석부도(石浮圖)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종남(終南), 관악(冠嶽), 청계(淸溪) 등이 죽 늘어서 있다. 산성(山城)의 성가퀴는 구름에 닿아 있는데, 도시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 언제나 청량한 밤에 인적은 없고 종소리만 은은히 저 멀리서 들려온다. 이 모두는 별장의 그윽한 정취와 뛰어난 경관이므로 아울러 기록한다.

소나무가 울창한 안암, 백사장이 있는 안암천, 큰 길 흥인문로, 뽕죽한 용마루와 흰 담이 있는 관왕묘, 연꽃이 있는 동지, 동지 주변의 넓은 농토 순으로 가까이에서 멀리 보이는 경관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또한 동쪽, 북쪽, 남쪽으로 원경을 언급하였고, 특히 남쪽으로는 남산, 관악산, 청계산이 첩첩이 보인다고 했다. 또한 도시 가까이에 산성의 성가퀴가 보이고, 구름에 닿아있는 모습이 조망된다고 묘사했다. 인적 없는 밤이 되면 은은히 종소리가 들려 아늑하다고 표현했다.

E4는 상산(商山)과 관왕묘, 동지, 남한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비온 뒤 해질녘 상산이 푸르게 쑥으로 가득했고, 관왕묘는 가을 느낌이 나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지는 붉은 연꽃이 곱다고 하며, 비온 뒤 물이 가득해 연꽃이 더 아름답다고 했다. 멀리 보이는 남한산은 구름이 걷히니 분칠한 성가퀴가 높게 보인다고 말했다.

E5는 종로로 생각되는 푸른 가로수길, 동대문, 동대문 누각인 동성루에 대해 언급하였다. 동지로 추정되는 연못은 물이 말라있으나 규모가 큰 편이라 하며,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가 열식되었는데 오래된 교목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주변 독길은 넓게 펼쳐져 말을 달릴 수 있을 정도이고, 원도가 있어 개나리와 측백나무가 심겨졌다고 묘사되었다. 동지의 원도에서 일대를 바라보면 개울가와 초가마을이 보인다고 했다. 개울가는 버드나무로 우거지고 초가마을은 꽃이 피어있었다. 지인이 사는 동정(東亭)은 개울가 마을에 있으며 복사꽃과 버드나무가 심겨져 교외주택의 정취가 난다고 했고, 동대문 근처 성곽에서는 산 아래 숨은 집들과 꽃과 나무, 키 큰 소나무, 시냇물, 사이사이의 초가집이 조망된다고 묘사했다.

과거 주요하게 언급되었던 주변 환경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Figure 1-b에서 볼 수 있듯이 낙산, 상산, 안암 등의 지형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옛글에서 동지와 연관되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동망봉(東望峰)³⁾이 근린공원 형태로 인근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천은 영미정동천은 복개되어 자취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안암천과 청계천은 복원되면서 물길로 남아있다. 성곽과 관왕묘, 흥인문로도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향유 특성

옛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지 일대는 지형이 평탄하고

주변에는 농지가 넓게 펼쳐진 전원적인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형이 완만하기에 낙산, 상산, 안암과 같은 인근의 언덕에서 동지도 잘 보이고, 반대로 동지에서 주변의 주요 장소들도 잘 조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옛글에서는 동지 남쪽으로는 경관이 자주 언급되어 가까이에는 남산이, 멀리 중첩되어 관악산, 청계산, 남한산이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남한산성이 높이 세워진 모습까지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 지역에 위치한 한양도성의 모습도 도시와 가까이에 있으며 구름에 닿아있다고 묘사했다. 동교 일대가 전원적인 평원 같은 모습이었고, 가까이에는 관왕묘와 푸른 상산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여러 산들과 산성의 성가퀴가 주요한 감상 대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지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들리곤 했던 만큼 인근 관왕묘와 연계되어 함께 향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지는 보통 가문 편이어서 비가 오면 물이 가득해 보기 좋다고 자주 언급된다. 동지가 물이 부족했기에 수량은 감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동지에 물이 적을 때도 식생이 아름다워 그 자체로 하나의 정원으로 생각되기는 하였지만, 비가 온 뒤가 동지를 즐기 가장 좋은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지에서는 연꽃과 버드나무가 주요 경관요소로 언급되었다. 붉은 연꽃을 묘사한 글이 많았으며, 못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풍경이 아름답다고 읊어졌다. E5에서는 버드나무가 오래되어 큰 교목이 되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2) 서지

(1) 주요 행태

천연정이 조성되기 전의 옛글을 보면, W1은 이덕무가 지인의 이들을 데리고 서대문 밖 지역을 유람한 것으로 Figure 2-a에서 일부 표기하였듯 고양에 있는 경릉을 둘러보고, 연희궁, 봉원사를 보고 모화관 뒷산을 지나 서지에 이르고, 서지 북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지인의 처소에 간 내용을 담고 있다.

W3에서는 박지원이 유년 시절 서지와 무악천 일대를 오가며 놀았던 추억을 언급해 두 개의 수공간이 놀이공간으로 추억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연정이 조성된 이후의 옛글에서는 천연정이나 서지에 가서 연을 감상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천연정에서 연을 감상한 글이 많으며, 일부 글들은 서지에서 감상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W6은 만경재가 자택이었던 윤기가 천연정에 며칠을 연속해 방문하며 연을 감상한 내용이고, W9는 말을 천연정에 매놓고 서지에서 연을 감상한다고 했다. W15는 돈의문을 나와 의주로를 지나 서지에 이르는 동선을 언급했다.

서지에서는 연을 감상하며 여러 모임이 이루어졌고, 작시 대

결, 음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돈의문 밖 대표경관이나 한양의 팔경 중 하나로 서지를 꼽을 정도로 많은 선인들이 풍류를 즐겼던 공간으로 생각된다. W7은 지인들이 휴가일에 경기관찰사였던 서영보를 찾아와 천연정에서 운을 나눠 작시와 음주를 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다. W14에서는 천연정에서 20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며 연을 즐겼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일 가는 꽃구경으로 이 해를 기억하시니 좋은 유람이 참으로 습가지와 같으니(東都地主風流足, 第一看花記此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여름철 서지는 더위를 피하고 흥몰이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W10은 한여름 연꽃이 향기로워 '오얏 담그고 외 띄우고 웃으며 즐기다가 언제든지 석양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沈李浮瓜欣笑傲, 常時歸影遍斜陽)'고 언급하기도 했고, W13은 '천연정 올라서 무더위를 피하는데 밤늦게 연꽃 구경하다 정자 위에서 잔다네 ... 먼 산에 새벽닭 우니 마시던 술이 어름같이 차구나라며 더위를 피해 천연정에서 밤을 보낸 얘기를 언급하였다.

(2) 경관요소와 요소별 묘사 내용

서지의 주요 경관요소들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W1에서 서지에 대한 직접적 묘사는 없지만, '반송지 북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현재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처소를 방문하였다'는 기술이 있다. 서지 북쪽으로 산자락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W2는 돈의문 밖 대표경관으로 서지와 교외에서의 창춘을 손꼽고 있다. 서지에 대해서는 물이 푸르러 물들일 것 같은 빛(蟠池水綠可染)이라 말하였고, 물에 흔들리는 푸른 연잎과 그 사이사이에 섞여있는 구릿대(白芷)의 모습을 묘사했다.

W4는 한양의 팔경 중 하나로 서지를 꼽았는데, 연못의 물이 깊게 고여 아름답다(曲塘滄瀾一泓然)고 표현했으며, 연꽃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으며(萬本蓮) 향기가 널리 퍼지고(十里香生), 이슬방울에 반사된 연꽃의 모습과 실에 영긴 것 같은 꽃받침(抽絲結蓓)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꼽았다.

W5는 만경재에서 서교 일대를 바라본 내용으로 서대문 밖 마을이 수많은 집들(城外萬家)로 가득하고 정자와 누대가 꽃과 버들과 어우러지고(疊榭層樓掩映花柳澤), 수레와 말들이 오간다(車怒馬呵擁康莊)고 묘사하는 등 화려하고 변화한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경관은 목벽에서 인왕을 가로지르는 성가퀴(一帶粉堞, 南自木覓, 北跨仁王)로 길게 하얀 성곽과 기와가 이어지고 그 위로 나무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묘사했다. 세밀히 묘사한 내용은 아래 글과 같다.

한 줄기의 하얀 성가퀴가 남쪽 목벽산(木覓山)에서 북쪽 인왕산(仁王山)까지 눈앞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데, 성 위로 모습을 드러

낸 나무들이 밀동은 가려진 채 제멋대로 늘어서서 형형색색 갖가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떤 것은 구름이 쌓인 것처럼 울창하고, 어떤 것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곧추서 있고, 어떤 것은 앙상한 줄기의 꼭대기에만 잎이 퍼진 모습이 일산(日傘) 같고, 어떤 것은 창을 세운 듯이 우뚝 솟았고, 어떤 것은 나뭇가지가 마치 조각해 놓은 것처럼 기묘한 모습이고, 어떤 것은 머리카락처럼 처렁 처렁 늘어져 있다.

까치 등지가 점점이 보이고 새들이 나뭇가지를 회롱하며 놀고 있는데, 연초록 잎사귀들이 진초록의 숲 위에서 아름다움을 다투고 붉은 꽃들이 성가퀴의 검푸른 기와 사이로 자태를 뽐낸다. 저너노을 물들 때면 숲도 함께 붉어지고, 눈 내리는 겨울이면 숲도 희게 변한다. 안개 끼면 취하여 끄꾸는 듯하고, 날이 개면 빗질하고 세수한 듯하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굵은 나무, 곧은 나무 할 것 없이 제각기 특이한 모양이고 성긴 나무, 뻣뻣한 나무, 짝지어 선 나무, 홀로 선 나무 할 것 없이 모두가 절묘한 모습이다.

이는 흡사 커다란 그림 병풍을 공중에 둘러쳐 놓은 것 같으니, 나는 늘 문을 열고 한가로운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곤 한다.

서지에서 연을 감상한 시문은 '천연정상련(天然亭想蓮)'이나 '서지에서 노닐며(遊西池)'의 제목으로 많이 남겨져왔고,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한 또는 가을철 연잎만 남았지만 한적한 서지를 보기 위한 시문이 많았다.

여름철 서지를 방문하고 남긴 시문은 W10, W11, W13이 있다. W10은 날이 따뜻해져 인근 사대(射臺)에 잔디가 푸르러진 모습을 바라보았고, 연못에 한 무리 말 탄 사람들이 비친다고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지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미풍에 불어오는 연꽃 향기가 좋다고 했다. W11은 버드나무(垂柳)와 연꽃을 언급하였고, 버드나무와 바람을 연관하여 묘사했다. 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더위를 이겨낸다고 했다. W13은 더운 여름 밤새 천연정에서 서지를 조망하며 연을 감상한 내용으로, 연못을 넓은 바다와 같다고 얘기했다. 연잎의 넓적하고 위로 솟은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주변은 장안에 등불이 밝다고 해 주변의 변화한 도시환경을 짐작하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을철 연을 감상한 시문도 여름과 같이 많이 있어, W6, W8, W9, W15에서 연꽃은 시들어가고 연잎은 연밭이 여문 상태로 묘사되었다. W6은 꽃은 시들어졌지만 연잎이 푸르게 남아 있었는데 날이 더 추워져 서리가 내리니 하루 사이에 잎이 지고 향기도 약해지는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였다. 연잎이 지니 개구리밥(萍)이 연못에 드러났다고 했다. W8은 서지 연못가에서 연꽃을 가까이 조망하였고 연잎이 시퍼렇게(蓮葉靑靑) 연밭이 여문 모습(蓮子團)과 매미 소리가 들리는 높은 버드나무, 산기운에 젖어 서늘한 제방 풀(涼塢草)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해질녘 성에 새가 내려앉고 석양이 지는 모습(鳥下層城返照殘)도 표현했다. 가을철 연꽃과 주변의 변화를 보며 고향에서 추수를 해 올벼밭을 짓고 있을 것이라고 연상하였다. W9는 버드나무 연못가(水柳傍)에서 바람을 느끼고 가을빛이 가득하다(秋色滿池塘)고 언급했다. 연꽃은 오히려 담박해서 곱다(澹淡猶殊艷)고 묘사하였고 맑은 향기가 맡아진다고 했다. W15는 초가을 석양이 비치는 성곽과 오가는 거마들로 북적이는 의주로를 묘사했다. 의주로에서 멀리 연꽃이 보이는데 술잔보다 클 정도로 활짝 폈다고 표현했다. 연꽃은 들판 가운데 홀로 향기를 낸다고 말했다.

그 외 W7은 흥취에 천연정에 서늘바람이 일어나는 느낌이라며, 몇 천 섬의 맑은 물로 가득한 초록빛 방죽(綠陂清水千千斛)과 푸른 잎 붉은 꽃이 잔물결에 비치는 모습(膩碧粉紅瀉瀉靨)을 인상 깊게 기록하였다.

W12는 천연정에서 보이는 안산(華峴)과 자각봉(紫閣峯)의 산세가 빼어나 가까이에 위묘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도 하얗게 둘러진 성곽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했고, 성곽 위로 백악산이 반만 드러난 모습이 부처의 곱슬머리 같다고 독특하게 묘사했다. 또한 서교 일대의 주요 행정기관인 경기감영도 가까운 거리라고 언급했다. 천연정을 다시 건설함과 동시에 연못의 경계를 넓히고 제방에 버드나무를 둘러 식재하였다고 밝혀 서지의 경관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W14는 천연정 모임으로 주변 숲이 종일 떠들썩했다고(林下鬧) 얘기했고, 주변 가옥들은 빼곡하고 집집마다 성가퀴가 높아 경계가 연결(千家危堞境中連)되었다고 했다. 수면에 비단동천이 열렸다(水面涼開錦洞天)고 표현하며, 환한 달빛 아래 외로이 연꽃이 피었다고 얘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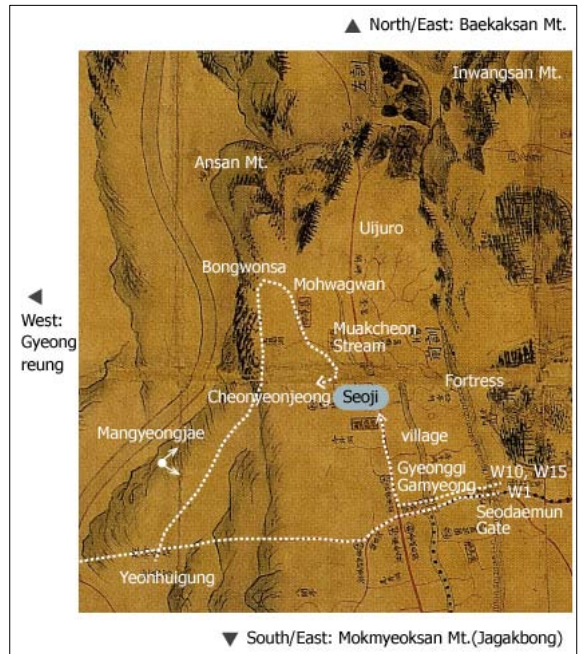
과거 서지 관련 옛글에서 주요하게 묘사된 장소는 Figure 2-a와 같다. Figure 2-b를 통해 현재의 주변 환경을 보면 안산과 인왕산을 제외하고는 옛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길게 연결되어 깊은 감명을 주었던 성곽은 인왕산 아래부터는 멸실되어 현재 서지 자리에서는 성곽이 잘 보이지 않는다. 돈의문도 터로만 남아있다. 과거 의주로였던 길은 규모와 형태는 달라졌지만 큰 흐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무악천은 골목길로 복개되어 있다.

(3) 향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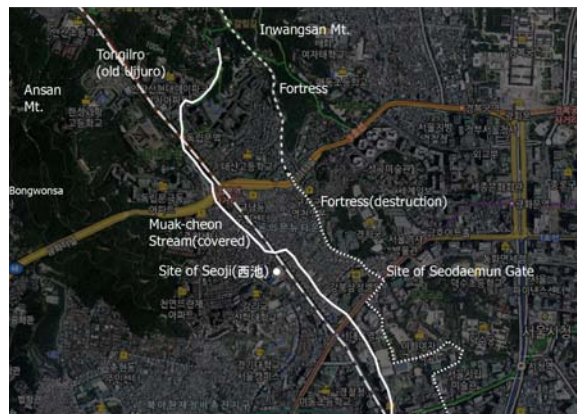
서지 일대의 경관을 그려보면, Figure 2-a와 같이 동쪽으로는 큰 길이 있고 이 길은 수레와 마차가 자주 다니는 복잡한 길이였다. 길 너머로는 무악천이 흘러 하천과 서지 연못은 서교 일대에서 중요한 수공간이었다. 무악천 너머로 한양도성이 남산부터 인왕산까지 길게 이어지는 형상은 여러 옛글에서 언급되어 서지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경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지에서 주변 가옥들을 조망한 내용도 자주 나오는데, 가옥

들로 밀집한 도시의 변화한 분위기가 서지의 경관으로 좋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북적거리는 분위기에 대한 묘사가 있는 반면 서지 서북쪽으로는 산자락이 이어져 숲과 같은 고요한 공간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서지는 도시적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반대편으로는 자연적인 경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진다.

서지 주변으로는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 안산에 대한 묘사가 많았다. 안산은 고지도에서 안현, 모악, 무악, 기봉, 길마재, 화현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다. 안산은 산 모양이 독특하다고 여겨져, 안산에 대해 '우뚝 솟은 봉우리가 마치 사람이 투구를 쓰고 다른 사람의 왼쪽 어깨 너머로 뿔기를 엿보는 것 같으며 매일 저녁 봉화를 올려 남산의 봉수대에 무사함을 알리는 고개[30]'라고 표현한 글도 있다. 안산은



a. major place and passing route in past(Dosung Daejido)



b. past major place in present(naver satellite map)

Figure 2. Major places in Seoji area

Table 5. Main behavior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at Seoji

	Main behavior	Landscape Characteristics		Description/Sentiment
W1	- Going sightseeing at the historical remains in Seogyo(西郊) area and visiting friend's house; going up to the north valley of Seoji with a friend's child in autumn - Passing route: Seodaemun → Gyeongreung → Yeonheegung → Bongwonsa → mountain behind Mohwagwan → north valley of Seoji	surroundings	Seodaemun(西出郭門)	West fortress gate
			Gyeongreung(懿昭墓)	Strolling in forest and watching stone sculpture
			Yeonheegung(延禧宮)	Looking around historic site which had been a secondary palace in Sejong period
			Bongwonsa(奉元寺)	Reading Buddhist literature to take a break for a while
			road(歸路)	Thinking of the past defeat of the rebellion of Lee Gwal
		north valley of Seoji(盤松池北谷)	Beautiful and petite maple tree and mums in front of house	
W2	- Recommended as representative landscape outside of Donuimun Gate	surroundings	spear dance(舞槍)	Fast like acrobatics on horse
			lotus(荷)	Green lotus leaf shaking in the water
		pond	angelica(白芷)	Mixed with lotus leaf
		water of pond(水)	Deep blue color as being dyed	
W3	- Remembering one's hometown near the Seoji area where one played with friends - Passing route: Pyeonggye ↔ Seoji	surroundings	Muakcheon stream(平溪)	Described as gentle stream
			Seoji(盤池)	Remembering one's childhood memory of playing near stream and pond
W4	- Choosing one of the 8 representative landscapes of Hanyang	pond	pond(塘)	Curved shape(曲塘), Pond full of clear water
			lotus(蓮)	Full of flowers as if ten thousand lotuses were blooming. The scent of flowers wafted along by the breeze over great distances, Red light reflected in dewdrops like marble, The contrast between a lotus calyx and its green leaf
W5	- Looking down Seogyo(西郊) area from a house located on the south-west hill of Seoji and describing landscape	surroundings	Mangyeongjae(萬景齋)	Located to the west on high ground, squarely facing Seodaemun Gate
			Seodaemun(西門)	West watchtower was seen
			village outside the wall	There were numerous(萬家) houses outside the wall
			pavilion/lookout(榭層樓)	Mixing with flowers and willow trees
			road	Going around the main street bustling with fancy carts and bulky horses
			fortress(堞)	White fortress was connected lengthwise from Mokmeoksan Mt. to Inwangsan Mt. Viewing trees of various shapes over a fortress. The fortress resembled a painting on a long scroll hanging on the air
			Mokmyeoksan Mt.(木覓)	One edge of the fortress
Inwangsan Mt.(仁王)	One edge of the fortress			
W6	- Enjoying lotus at Cheonyeon-jeong several times in autumn	pond	lotus(蓮)	The last green lotus leaves fell off and their scent was weakened after the first frosts of autumn
			duckweed(萍)	Appeared on the surface of pond after lotus leaf's falling off
W7	- Coming to Seoji to meet Seo Yeong-Bo on vacation in late summer(absence of Seo Yeong-Bo due to busy official duties) - Writing a poem following divided rhyme and drinking with four at Cheonyeon-jeong	pond	pavilion(盤松亭)	Excitement over writing a poem about feeling a cool breeze rise and dispel the sultry air
			embankment(陂)	The pond was filled with several thousand seoms water in the green embankment
			lotus(蓮)	Green lotus leaf and red blossom reflected in a rippling pond
W8	- Thinking of one's hometown, enjoying lotus blossoms and surrounding landscape at sunset in early autumn	surroundings	fortress(城)	A flock of birds descended on a high fortress and the setting sun gilded the sky
			pond	lotus(蓮)
			willow(柳)	Sound of cicada was heard from high willow
			grass of bank(塢草)	Feeling of cool breeze
W9	- Enjoying lotus and drinking after tying horse at pavilion at sunset in autumn	pond	pavilion(林亭)	Tying horse
			willow brook(柳傍)	Feeling wind
			lotus(蓮)	Lotus leaf filled with sunset glow, Plain but beautiful lotus blossom, Fresh scent
			pond(池塘)	Filled with autumnal tints
W10	- Enjoying lotus at Cheonyeon-jeong with friends in the midsummer - Passing route: Seogyo-gil → Cheonyeon-jeong	surroundings	Seogyo-gil(西郊馳道)	Long and straight way along the fortress
			archery platform(射臺)	Green grass sprout in a warm day
		pond	pavilion(軒)	Open all around deep in the valley
			pond(塘)	Reflecting on a group of riders
		lotus(蓮)	Good lotus scent blown by gentle breeze	

	Main behavior	Landscape Characteristics		Description/Sentiment
W11	- Traveling to enjoy lotus blossoms and avoiding the heat after rain in summer and drinking with using lotus leaf as glass	pond	weeping willow(垂柳)	Windy with weeping willow
			pond(池)	Mentioned as green pond
			lotus(蓮)	Staying longer appreciating the figure of lotus
W12	- Mention of Seoji as a cultural place which diplomatic party, farewell party of nobilities, meeting for writing poem, drinking and enjoying music were held - Viewing landscape of Seoji and surroundings from Cheonyeon-jeong in summer	surroundings	Ansan(華峴)	Especially outstanding feature such as pulling distant view
			Jagakbong(紫閣)	Feature such as pulling distant view
			west fortress(西城)	Being around with white fortress, Baekaksan Mt. over the fortress seemed like curly hair of Buddha
			Gyeonggi Gamyong(畿輔布政營治)	Located near with Cheongyeon-jeong
		pond	pond(池)	Being biggest and most plenty of lotuses, Reconstructing the boundary of pond again
			weeping willow(檉柳)	Planting willow trees following the bank of pond
W13	- Enjoying lotus at Cheonyeon-jeong all night long avoiding the heat in summer night	surroundings	sound of bell(鍾聲)	Being heard gently
			surrounding houses	Bright with lights of numerous houses
		pond	lotus	Flat and large leaves standing high, Fresh scent prevailed, Comparing flower bud to light
pond	Looking like vast sea			
W14	- Appreciating lotus and drinking with over 20 people invited by Geonggij governor at Cheonyeon-jeong	surroundings	forest(林)	Noisy with this gathering all day long
			surrounding houses(千家)	Looking like that the wall of houses was connected
		pond	lotus(荷花)	Mentioned as silk opened to the surface of pond, Appreciating lonely lotus blooming alone under the moonlight and fresh wind
			pavilion(堂)	Full of the sound of six-holed bamboo flute and drum
			pond(滌池)	Standing for farewell waterside, Thinking the most beautiful place with lotuses compared to Seupgaji, famous lotus garden in China
W15	- Enjoying lotus at Cheonyeon-jeong at the Seodaemun Gate at sunset in early autumn - Passing route: Seodaemun → Uijuro	surroundings	fortress(西郭)	The setting sun was illuminating
			Uijuro street	Crowded with coming and going carts and horses, The lotus blossoms looked bigger than a wine cup from far away
		pond	lotus(蓮)	Lotus was in full bloom, The fragrance of a pond in the middle of a field

형태도 특이하지만 봉수라는 기능적 용도가 있으며 ‘이팔의 난’과 같은 역사적 사건도 담고 있어 당대에 의미 있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지는 도성에서 가장 크고 연꽃이 많은 연못으로, 연꽃 감상이 목적이 되어 서지를 방문한 선인들이 많았다. 오랜 시간 머물며 연을 세밀히 바라보며 시를 쓰다 보니, 연꽃의 푸른 연잎(蓮葉), 붉은 꽃(蓮花), 연꽃의 꽃받침(蒂), 연밥(蓮子), 연꽃 봉오리(菡萏)처럼 세부적 부분⁵⁾들을 관찰하여 묘사한 내용이 많았다.

서지의 연꽃은 의주로에서도 멀리 보여, 돈의문을 나와 경기 감영을 지나고 의주로를 지나 서지에 닿는 행로에서 미리 서지의 연꽃을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다.

서지에서 연꽃을 감상한 글은 여름 뿐 아니라 가을철에 기술한 글들도 많았다. 연꽃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던 여름과 달리 초가을에는 연꽃의 담백한 아름다움을 한적하게 즐길 수 있었고, 가을철 연꽃 부분들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큰 요소가 되어 감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남지

(1) 주요 행태

남지는 인근에 양반들이 거주했던 주거지가 있어 연꽃이 만발한 시기에는 자택에서 여러 차례 왕래하며 연을 감상하였다는 옛글이 많이 보인다.

S1은 성현이 6월 달 연꽃이 한창 피었을 때 쓴 시로, Figure 3-a와 같이 조선 초 약전현⁶⁾에 집이 있던 성현이 남지를 매일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S2의 시문에서도 성현이 밤에 지인들과 연못가에 다녀간 내용이 기술되었고, 다른 문헌에서도 남지의 이끼를 떠와 벗에게 장난을 걸기도 하는⁷⁾ 등 남지에 자주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S4와 S5의 일기를 쓴 이유간의 집은 서대문 쪽 근동(芹洞)이다. 남지 옆 홍사효(洪思孝, 1555~?)의 저택에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한 내용이 있고,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홍사효의 집은 「남지기로회도」의 배경이 되었던 저택이다. 특히 연꽃이 만개한 6월 달에 모임이 잦았는데, 기록된 내용만 해도 6월 3일, 4일, 5일, 8일에 여럿이 모였던 것으로 나타난다[42]. 6월 5일과 8일의 일기문은 아래와 같다.

1629년 6월 5일

지난해 학반(홍사효)의 집에서 지연(池蓮)을 감상하였다. 이달 초 3일에 승지와 여러 벗들이 또한 가서 감상하고 돌아왔다. 초 4일에는 학반이 서간을 보내어 연을 함께 감상하자고 하였다. 나는 지금 이질을 만나 갈 수 없다고 답하였다. 5일 아침에 또 글을 보내어 오라고 하였으나 어찌와 같은 글로 답하였다. 오후에 이호민이 왔다는 것을 들으니 비로소 가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 비록 옛날 향산(香山)과 낙양의 모임을 여기에 비길 수 있겠는가. 나는 병으로 참여하기를 사양하였으나 가지 않았다면 평생의 한이 될 뻔했다.[42]

1629년 6월 8일

인경의 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학반의 집으로 내려갔다. ... 좌중은 15인이었다. ... 우리 일행은 술 한잔을 마시고 또 약봉(서성)에게 한 잔을 권하였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마치고 돌아왔는데...[42]

여름철 연을 감상하기 위해 여러 지인들이 모이고,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다. 이 모임에서의 음주 방식으로 '코끼리 코(象鼻)를 기울여 술을 잔뜩 따르누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연실로 만든 술잔에 술을 마시는 벽통음(碧筒飲)⁸⁾으로 생각된다. 연꽃이 있을 때만 행할 수 있는 흥취로 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한 것이었다.

또한 남지는 송별의 장소가 되어 S3에서는 남지가에서 지인을 전송한 얘기를 했고, S9에서는 여러 재신들과 남지에 장막을 치고 술을 가지고 와서 송별모임을 가진 내용을 언급했다. 송별은 궁에 하직인사를 하고 승례문을 나와 한강으로 가는 경로로 진행되었는데, 남지는 남대문 밖에 나와 처음 맞게 되는 지물로 상징적 의미가 있어 송별장소로 자주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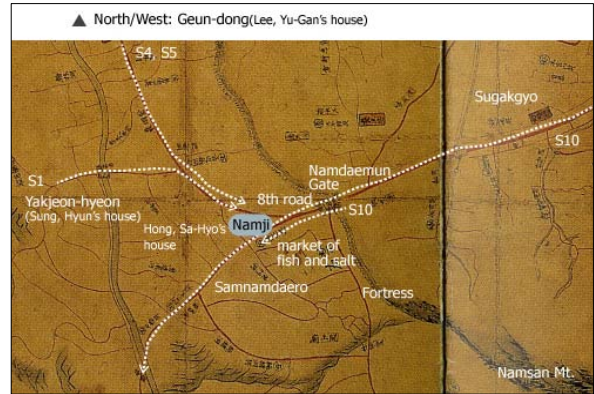
S7에서는 '남문의 연정에서 달빛 아래 산보하며 연을 감상하였다(南門蓮亭. 步月賞蓮)'고 하여 남지와 성곽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지는 주변에 민가도 많고 시장도 있었던 만큼 백성들의 생활을 도성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좋은 장소였던 것 같다. S10을 보면 여가시간에 남지 인근의 마을을 둘러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며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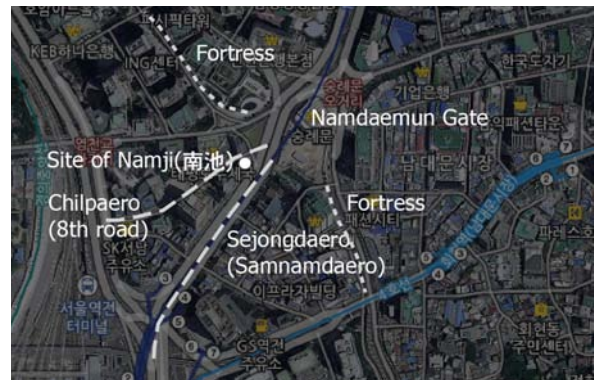
(2) 경관요소와 요소별 묘사 내용

남지 일대의 경우 옛글에서의 시선이 승례문과 너머의 궁궐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한 경관요소들은 적은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S1에서는 6월 연꽃이 한창 피기 시작했을 때 씻은 듯 깨끗한 모습으로 만 그루가 푸른 산처럼 보이고(萬柄亭亭翠傾蓋) 붉



a. major place and passing route in past(Dosung Daejido)



b. past major place in present(naver satellite map)

Figure 3. Major places in Namji area

은 꽃은 곱게 반짝이며(繁英灼灼紅初膩), 맑은 향이 십리를 풍긴다고 묘사했다. 연꽃은 청초한 자태라고 언급되며 군자에 비유하였다. S2는 밤에 남지에서 보이는 남산, 승례문, 장안 도로에 대해 언급했다. 푸르디푸른 남산이 우뚝 솟아있고(南山蒼翠高嶠嶂), 승례문이 인정 시간 이후 자물쇠가 채워져 낮에 복작이던 장안 도로는 인적이 끊겨 고요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남지에서는 곳곳이 선 푸른 잎이 붉은 꽃을 둘러싼 모습(亭亭翠蓋擁紅粧)과 바람 타고 느껴지는 맑은 향기(香遠益清風颯颯)를 인상 깊게 기록했고, 달빛이 비친 연못물에 대해 얘기했다.

S4, S5는 이유간이 남지와 인접해있는 홍사효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의 일기문이고, 기로회의 분위기는 S6, S7의 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가 내려 맑은 물이 연못에 가득(清水滿塘)하고 연꽃 향기가 느껴지며, 잔잔한 바람이 서늘하게 분다(微風借涼)고 표현하였다.

S8은 밤에 승례문 연정 주변을 산책하며 연을 감상한 내용이다. 성곽에 비친 나무그림자(層城樹影), 성벽에 달빛이 비친 모습(壁月昏), 침침한 연못물(池面沈沈), 푸른 물의 향풍(碧藕香風)에 대해 얘기했다.

S10은 남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남지에 인접해 마

음이 있어 가옥이 즐비한 것으로 그려졌다.

S11은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에 기록된 글인데, 인조대 연꽃으로 아름다웠던 남지가 황폐화되고 남지 일대에 어염시장이 들어서며 주변 분위기가 어지러워진 것을 묘사했다. 남지가 이 시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한양의 승경 중 하나로 꼽혔다. 인조대 가장 아름다웠을 시기의 남지의 모습이 이우간의 7대손이 생존하는 시기까지 계속 전해져 선인들에게 남지의 전형으로 기억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기억된 남지는 이후 1823년에는 인근 주민들이 돈을 모아 원래대로 복원된 바 있다.[1]

과거 남지 일대의 주요 장소는 Figure 3-a와 같고, 현재는 Figure 3-b와 같다. 성곽과 승례문, 남지터 양옆 도로라는 큰 맥락은 남아 있으며 더욱 고밀화되었다.

(3) 향유 특성

남지는 바로 인접해 삼남대로와 제8로의 큰 도로가 있었다. 삼남대로는 한양에서 충청, 전라, 경상 방향으로 가는 큰 길로, 이학규(李學逵, 1770~1835)가 '청시전도'에서 '삼남대로 모두 이곳으로 모여드는데 사람과 말의 행렬은 개미 떼 가는 것 같다'[48]고 묘사해 변화한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다. 또한 남지 일대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조성되어, 성현은 다른 시문에서 승

례문 밖 지역은 '민가가 다닥다닥 들어차 있어 조석으로 밥 짓는 연기가 오른다(魚鱗千萬落, 煙火暗晨昏)'고 했고, '한 치 땅이 금처럼 비싼 동네(一寸如金地)'라고[49] 묘사했다. 주변이 가옥들로 조밀했던 도시환경을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남지에서의 모임은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인근 개인의 저택에서 이루어지거나,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 시끄러운 반면, 밤에는 승례문이 닫히면서 인적이 드물어 고요해져, 밤 시간이 남지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던 시간으로 생각된다.

옛글에서 남지 북쪽의 승례문과 성곽, 남동쪽의 남산이 조망되는 경관에 대해 언급되었다. 특히 승례문과 성곽은 입지적으로 남지와 가까워 밤 시간에는 연지와 이들 지물들이 하나의 장소처럼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소를 산책하면서 시각적으로 연지가 보이기도 했지만, 연의 향이 계속적으로 느껴지면서 남지, 가로, 성곽 일대의 공간이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다.

남지에 연이 잘 관리되었을 시기에는 연꽃이 주요 감상요소가 되었다. 연꽃의 청초한 자태가 군자같다고 언급되었고, 남지에서의 모임을 곡강지(曲江池)의 연꽃 모임이라며 장안의 연못에 비유하며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Table 6. Main behavior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at Namji

	Main behavior	Landscape Characteristics		Description/Sentiment
S1	- Going to Namji to appreciate the lotuses every day in June when they were blooming - Passing route: house in Yakjeon-hyeon(西山) → Namji	pond	lotus(蓮, 藕花)	The blooming of the lotus was as clear as can be. Numerous lotus leaves seemed like a green mountain. Beautifully glittering red blossom began blooming. The scent of dewy flowers wafted along by the breeze over great distances. The lotus' elegant feature was like man of virtue
S2	- Enjoying lotus in the moonlight with 3 friends while drinking on a mat spread out in front of Namji	surroundings	Namsan(南山)	Namsan which was green as green stood high
			Sungnyemun Gate(崇禮門)	Sungnyemun Gate was locked with fish-shaped lock after the closing time
			town road(長安道)	Becoming silent at night
S3	- Farewell to friend at Namji	pond	lotus(蓮)	A red lotus blossom stood upright around green leaves. A fresh scent was carried on the breeze
			pond(沼)	Fragrancing. The moon shed its light more and more as night went on
S4	- Gathering in a group and enjoying lotus for 3 days at a friend's house near Namji in early June. Invited by letter of friend of that house in the morning - Passing route: a house in Geun-dong → Namji	pond	water of pond(池水)	Arising waves of layers due to sorrowful mind of farewell
			lotus(池蓮)	Compared to Guro gathering in Hyangsan, Nakyang in China
S5	- Drinking at friends' houses in early June. In a house near Namji, 15 friends gathered together - Passing route: a house in Geun-dong → In-Gyeong's house → Namji, Hong, Sa-Hyo's house → Seo, Sung's house			
S6	- Describing the landscape of Namji Girohoe in early June	pond	pond(塘)	Filled with clear water after raining
			lotus(荷)	Lotus scent wafted over the land by a calm wind

	Main behavior	Landscape Characteristics		Description/Sentiment
S7	- Enjoying lotus and drinking with using lotus leaf as glass in early June	pond	lotus(蓮)	Compared to lotus gathering in Gokgangji(曲江池) in China, Delicate fragrance of lotus like perfume of Yongyeon(龍涎)
S8	- Strolling around Sungnyemun pavilion, Namji and fortress at night - Passing route: lotus pavilion → fortress	surroundings	fortress(堞/壁)	One can hear a clear and ringing song over the fortress, Strange shadow of a tree reflecting on the fortress wall, Dim moonlight on fortress wall
		pond	lotus(蓮) water(池面)	Feeling fragrant wind of green lotus Gloomy in the water of pond
S9	- Farewell party at Namji in spring in a temporary shelter with drinking - Passing route: palace → Namji → Dongjak-jin	surroundings	palace Dongjak-jin(銅雀)	Bidding farewell to king Send-off following to Dongjak-jin
		pond	pond(蓮池)	Putting up a temporary shelter
S10	- Looking around a village near Namji through Sungnyemun Gate in spare time - Passing route: Sungnyemun Gate → village near Namji	surroundings	village(閭舍)	Located adjacent to Namji, Good for watching peasant's life
S11	- Thinking about the present ruined Namji and the past beautiful Namji in Injo period when Namji Kirohoe was highly regarded	surroundings	market of fish and salt	Confused with market of fish and salt near Namji
		pond	Namji(南池)	Buried but remained trace of past, Being remembered about Namji Kirohoe for ages

IV.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옛글을 통해 동지, 서지, 남지와 그 주변 환경에서의 주요 행태와 경관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 연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연지 자체의 아름다운 경관요소로 연꽃과 버드나무, 연지의 물을 꼽고 있다. 동지, 서지, 남지 모두 연과 버드나무가 식재되었고, 옛글에서 이들을 묘사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서지의 경우 연꽃을 오랜 시간 관찰하여 작품에서 연꽃의 부분 부분을 세밀히 감상한 내용이 많았다. 연지의 물 자체도 경관으로 자주 묘사되었는데, 연못에서는 흐르는 계류와는 또 다르게 물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어 연지의 아름다움으로 묘사되었다. 한결같이 맑고 푸르려 물들일 것 같은 빛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비온 후 가득찬 물, 연꽃이 반사되어 비치는 모습, 석양빛과 달빛이 비추는 모습 등이 인상 깊게 언급되었다. 서지가 세 연못 중 가장 수심이 깊어 연지의 물 자체에 대한 묘사가 많은 편이었다.

둘째, 각 연지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세 연지는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다. 동지가 주변이 들판과 산들로 둘러싸인 자연적 경관으로 인식되었다면, 서지는 수레와 마차가 다니는 큰 길과 밀집한 가옥들로 변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산 속의 숲 같은 분위기가 있어 자연적 경관과 도시적 경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다. 남지는 통행이 많은 큰 길과 주거지와 상업지가 인접한 시끌벅적한 장소이고, 승례문과 성곽과 같은 인문적 경관요소가 주로 인지되는 보다 도시적 경관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용행태 측면에서도 세 연지는 다른 성격을 보였다.

동지는 이동 중에 잠시 들려보거나 멀리서 조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지는 천연정이 조성된 이후에는 연꽃 관람에 목적을 두고 찾아서 방문한 옛글이 대부분이었다. 누정이 조성된 만큼 천연정에서 긴 시간을 체류하며 다양한 행태 양상이 나타났다. 남지는 여러 지역과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 인근 주변 지역에서 방문하기 용이한 위치였다. 또한 승례문 밖 일대에는 양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 이들끼리 서로 교류하며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남지가에 장막을 펴거나 인접한 지인의 저택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남지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있었던 만큼 밤 시간에 고즈넉하게 남지 일대를 산책하거나 연꽃을 감상한 내용이 많았다.

넷째, 동지, 서지, 남지 모두 한양도성과 인접하게 조성되었던 만큼 주변 경관에서 성곽이 인상적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곽은 하얗게 분칠되어 길게 연결되어 있고 성곽 뒤로 여러 수목들이 식재되어 성곽과 함께 독특한 경관을 형성했다. 이 같은 경관은 성 밖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한양의 고유한 경관이었고, 동지, 서지, 남지에서 성곽을 조망하며 감상을 남기곤 했다. 동지는 멀리 산성 성가퀴를, 서지는 인왕산과 남산 사이의 성곽을, 남지는 가까이 승례문 일대의 성곽을 조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동지, 서지, 남지에 대해 서술한 옛글을 보면 연지와 주변 환경을 연결해 하나의 풍경으로 묘사하는 글이 많았다. 이동하면서 일대의 농지나 주변의 숲, 산, 다른 인공적 경관요소들과 함께 체험하며 통합적으로 읊어졌고, 연지에서 연지를 조망할 때도 연못과 주변 환경이 어우러지는 경관으로 묘사되었다. 연지와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한양에서 넓은 수공간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옛글을 살펴 연지에서 선인들이 느꼈던 분위기를 찾아내보고자 했다. 선인들은 연지가 잘 유지될 때는 그 경관을 찾아가 즐기고, 가장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시기를 기억하고 찾아가곤 했다. 심지어 물이 마르거나 매몰되었을 때도 과거 연지가 가장 좋았던 시기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록으로 남기고 승경으로 꼽았고, 연지가 훼손된 상황에서도 옛 모습을 기억하며 경관을 즐기고자 했다. 연지의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은 조선시대 오백년 넘는 시간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연지를 유지해가게끔 했다.

그에 반해 이들 연지가 사라지게 되는 배경 및 과정과 현재 변화된 도시환경의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아쉬움이 든다. 동지, 서지, 남지는 도성 안과 밖의 연결부에 위치하여 도시환경에서 부족한 문화적 기능을 보완해주고 주변 지역에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도성 밖에서 한양만의 고유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서지와 남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연지의 매립이 결정되면서 그 자리는 한순간에 길, 학교, 상업시설들로 대체되고 말았다. 또한 과거 연지에서 감흥을 주었던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주변 경관들도 현재는 많은 부분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부분도 문화적 의미는 공유되지 못해왔다. 연지의 매몰 뿐 아니라 그 이후 도시에서 물길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물길과 수공간에 대한 부분은 외면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오래된 도시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어온 요소는 지형이나 수계와 같은 자연적 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한양과 같은 고도의 도시에서 수경관이 거의 보존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거 이들 연지가 의미 있었던 것은 연지 자체의 경관도 수려했지만, 도시와의 연결이 좋고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뤄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물길과 연결되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현재 물은 도시속에서 제어수단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고, 그 결과 도시환경은 건조한 환경으로 남게 되었다. 한양의 옛 경관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의미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도시환경을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도시환경에서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서울에서는 한양도성의 복원, 하천의 복원 등 여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동향을 보며 연지와 같은 옛 경관이 현재의 도시환경에서도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복원보다는 경관이나 문화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 1) S1, S2의 시문 외에도 『용재총화』 8권에서 남지에 떠있는 이끼는 태발로 떠왔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으나, 경관에 대한 직접적 묘사는 없어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 주 2) 시문에는 앞 시내(前溪)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영미 정동천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 주 3) 청룡사 동쪽에 솟은 산봉우리이다. 단종왕비 정순왕후 송씨가 거처하며, 단종을 위하여 매일 조석으로 이곳에 올라 와서 동쪽으로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50]
- 주 4) 한 연구에서는 심사정의 「경구팔경」의 세 번째 작품이 자택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안산, 무악재, 북한산을 그린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51]
- 주 5) 『이아(爾雅)』에는 연꽃에서 '즐기는 가(茄)이고 잃은 하(薏)이고 밀동은 밀(蓂)이고 꽃은 함담(菡蓞)이고 열매는 연(蓮)이고 뿌리는 우(藕)이고 씨는 적(的)이며 적의 가운데가 의(薏)이다'라고 기술되었다.[52]
- 주 6) 성현의 자택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지명이 명칭에 남아있는 중구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남지까지의 직선거리를 보면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 주 7) 성현의 『용재총화』 8권에서 남지에 떠있는 이끼를 매생이라고 떠와 지인에게 장난을 친 내용을 담고 있다.
- 주 8) 큰 연잎에 술 서 되를 담고 연의 잎과 줄기 사이를 비너로 뚫어 술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하여 줄기를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구부러 줄기 끝에 입을 대고 술을 빨아 마셨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 한다.[52]

REFERENCES

- [1] Gil, J. H., Son, Y. H. and Hwang, K. W.(2015). A Study on the Location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Lotus Ponds of Fortress Wall of Seoul(漢陽都城) during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4): 38-51.
- [2] Hwang, K. W.(2011). Interpreting Landscape(경관의 해석).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482-553.
- [3] Lee, E. S.(2010). Literature as a Research Subject of Geography and Literature as a Research Mean of Geography(지리학 탐구대상으로서의 문학작품과 지리학 연구수단으로서의 문학작품).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2(3): 146-153.
- [4] Baek, S. J. and Jang, H. S. Ed. and Trans(2003). 17~19c Everyday Life of Europe, Enjoyment of Microhistory(17~19세기 유럽의 일상 세계, 미시사의 즐거움). Dolbegae.
- [5] Lee, J. G.(1992). A Study on the Retreating Villa(Byeol Soe) Garden in Choso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of Sungkyungwan University.
- [6] Jeong, D. O.(1973). On the Soswe Won Garde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2: 27-33.
- [7] Lee, W. H. and Kim, D. H.(2015). A Basic Study on Spatial Recognition through Poet in Soswaewon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3): 38-49.
- [8] Eom, T. G., Kim, S. J., Park, J. L., Kang, H. M. and Sim, W. K.(2011).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 at the Geumsidang sibigyung(12 Landscapes) in Miryang, Gyeongna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1): 1-18.
- [9] Lee, M. J., Sagong, Y. B. and Kim, Y. K.(1999). A Study on the Preferred Elements of Pavilion in Kwang Ju City through the Analysis of Poe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7(1): 29-45.
- [10] Park, Y. H.(2008). Pavilion Literature of Jung-won Area.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sociation. 33: 1-32.
- [11] Lee, J. M.(2008). GiMyoSaRim and the Cultural Space of ChungJu.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sociation. 33: 101-126.
- [12] Son, Y. H. and Ham, K. M.(2011). A Study on Yijing and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Poems in Changdeokkung's

- Rear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9(3): 124-133.
- [13] Shin, S. S. and Rho, J. H.(2011). An Interpretation of the Landscape Meaning and Culture of Anpyung-Daegun(Prince)'s Bihaedang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9(1): 28-37.
- [14] Lee, H. W.(2012).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Nu-Jeong Cultural Landscape During the 16~18th Century.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45(1): 190-217.
- [15] Rho, J. H. and Lee, J. H.(2014). A Study on the Persons Enjoying the Landscape of Daegodae in Hamyang and Space Hegemony through Analysis of Poetry and Letters Carved on the Rock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1): 10-21.
- [16] Ahn, G. B.(2014).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Youngnam-Lu through the Analysis of Poetr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1): 1-9.
- [17] Kim, D. H. and Choi, J. H.(2015). Enjoyment Culture of Garden through Poet and Text, Painting in the 18·19th Century, Hanya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3(2): 36-48.
- [18] Jeong, M. and Lee, H. S.(2013). Reading Korean Classical Writings Everyday of Ahn, D. H., Lee, J. M. and Jeong, M.(안대회·이종묵·정민의 매일 읽는 우리 옛글 20): 20. Minumsa Digital Classic.
- [19] Park, S. Nuljae Sok-jip(訥齋先生續集) 2.
- [20] <http://tip.daum.net/question/82098767?q=>. Lee, S. G. Jibong-jip(芝莖集) 1.
- [21] Huh, M. Gieon(記言) 15 © Kim, M. S. of ITKC(2006).
- [22] Lee, M. S.(1992). Seopa-jip Korean Translations First Volume. Haeju Oh-ssi Chutan Gong-pa Jongjung: 584. Oh, D. I. Seopa-jip(西坡集).
- [23] Kim, H. R. Ed. and Trans.(2015). Writing a Diary 2(일기를 쓰다 2). Dolbegae Publishing: 264-265. Yu, M. J. Heumyeong(欽英).
- [24] Kim, B. N.(2012). Re-Illumination of Jukranshisa. Woori Society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26: 33-72.
- [25] Lee, D. M. Cheongjanggwon-jeonseo(靑莊館全書) 6 © Lee, J. S. of ITKC(1978).
- [26] Lee, D. M. Cheongjanggwon-jeonseo(靑莊館全書) 20 © Lee, S. of ITKC(1979).
- [27] Park, J. W. Yeonam-jip(燕巖集) 1 © Shin, H. Y. and Kim, M. H. of ITKC(2004).
- [28] King Jeongjo. Hongjae-jeonseo(弘齋全書) 2 © Lim, J. K. of ITKC(1998).
- [29] Yun, G. Mumyeongia-jip Munjo(無名子集文稿) 5 © Kang, M. J. of ITKC(2013).
- [30] Lee, G. P.(2014). Mumyeongia-jip Korean Translations 4.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Yun, G. Mumyeongia-jip Sigo(無名子集詩稿) 4.
- [31] Seo, Y. B. Jukseok Gwanyu-jip(竹石館遺集) 1 © Lee, S. H. of ITKC(2013).
- [32] Jeong, Y. Y.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2 © Song, G. C. of ITKC(1994).
- [33] Jeong, Y. Y.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4 © Yang, H. Y. of ITKC(1994).
- [34] Jeong, Y. Y. Dasan Simun-jip(茶山詩文集) 6 © Lim, J. G. of ITKC(1994).
- [35] Kim, J. H. Wandang-jeonjip(阮堂全集) 6 © Shin, H. Y. of ITKC(1988).
- [36] <http://tongblog.sdm.go.kr/158>. Hwang, R. B. Hwangrokcha-jip(黃錄此集).
- [37] Kim, Y. S. Unyang-jip(雲養集) 2 © Ki, T. W. of ITKC(2013).
- [38] <http://www.culturecontent.com>. Lee, G. Lee Haehakyuseo(李海鶴遺書)
- [39] Sung, H. Heobaekdang Si-jip(虛白堂詩集) 2 © Lim, J. G. of ITKC(2008).
- [40] Sung, H. Heobaekdang Bo-jip(虛白堂補集) 3 © Cho, S. H. of ITKC(2011).
- [41] Lim, E. R. Seokcheon Si-jip(石川詩集) 4.
- [42] Yun, C. Y.(2002). A History of Tramsmission of Yŏnjihoe sijong-sasil(蓮池會始終事實) and Namji kirohoe-do(南池耆老會圖) by Yi Yu-gan(李惟侃, 1550~1634). Jangseogak 8: 55-91.
- [43] Jang, Y. Gyegok-jip(谿谷集) 31 © Lee, S. H. of ITKC(1997).
- [44] Lim, J. K.(1998). Baeksa-jip Korean Translations 1.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23. Lee, H. B. Baeksa-jip(白沙集).
- [45] Song, J. G. Dongchundang-jip Sok-jip(同春堂集續集) 10 © Chung, T. H. of ITKC(2007).
- [46] Kim, J. S. Sugok-jip(壽谷集) 1.
- [47] Kang, J. H. Sammyeong Si-jip(三溟詩集) 6.
- [48] Park, H. W. Ed. and Trans.(2015). 18c Seoul Landscape through Seongsijeondo(성시전도시로 읽는 18세기 서울). Bogosa: 255-269.
- [49] Sung, H. Heobaekdang Bo-jip(虛白堂補集) 1 © Cho, S. H. of ITKC(2011).
- [50]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2009). Geographical Dictionary of Seoul(서울지명사전).
- [51] Choi, Y.(2015). Column: Choi Yeol, Meaning of Picture(최열 그림의 뜻) 76. Kim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http://www.daljin.com>).
- [52] Lee, J. M.(2012). Yanghwatorok. Aka-net. Kang, H. A. Yanghwatorok(養花小錄).

원 고 접 수 일: 2016년 2월 19일
 심 사 일: 2016년 2월 29일 (1차)
 게 재 확 정 일: 2016년 3월 1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